

[종합·해설]

丁 - 秋 대결구도속 김효석·천정배 가세

<세균>

<미애>

7·6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지도체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기울면서 당 지도부 경쟁 구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의 지도체계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유력시됨에 따라 그동안 당 지도부 경선 출마 의사를 보였던 이사들이 당권 주자군과 최고 위원 주자군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우선 당권 주자군으로는 정세균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구 열린우리당 의장 및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정 의원과 구 민주당 출신으로 대중적 친화력이 강한 추미애 당선자의 약간 구도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최근 당권 주자로 급

7·6 전대 앞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3~4파전 압축**최인기·이낙연 의원 등 10여명 원내대표 '물밀 경쟁'**

부상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구 민주 계는 물론 정동영 전 의장 그룹, 수도권 386 의원 그룹,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등으로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또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 일부에서도 김 원내대표에 당권 도전에 나서리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천정배 의원도 정치적 기반 회복을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는 3~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해온 송영길, 문희진, 김부겸 의원 등은 최고위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구 민주계인 최인기 의원과 박주선 당선자의 광주·전남 둑 최고위원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또 김성곤 의원과 김영진 당선자

의 최고위원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신낙균 비례대표 당선자가 여성 봉의 최고위원에 도전할 예정이며 원외인 김민석, 정균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의 꽃'으로 불리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물밀 세물이 경쟁도 끈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1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각 후보들은 우군 확보를 통한 기선 제압을 위해 세 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송영길, 원혜영, 이미경, 김부겸 의원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호남에서는 강봉규, 이강래, 이낙연, 최인기 의원 등이 후보군이며 충청에서는 홍재 형 의원이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맨 왼쪽)가 지난달 30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지역 18대 총선 당선자 및 낙선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지역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亞 문화도시·혁신도시·U대회 유치 등**“광주·전남 현안사업 끝까지 지켜내겠다”****민주 손학규 대표 광주 방문**

언과 관련,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10년 동안 쉼없이 열심히 일해온 만큼 지금이 (나를) 되돌아볼 좋은 계기다”며 불屠杀을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한미 FTA 및 쇠고기 협상과 관련, “쇠고기 협상은 협상도 아닌 협상으로, 국민건강권과 경영주권을 포기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 김영진·김재균·박주선 당선자 등이 참석했으며, 손대표는 이후 윤광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및 18대 총선 낙선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처음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손 대표의 광주 방문행사로 간담회가 연기돼 지역 현안이 정당 행사보다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한미 쇠고기 협상 백지화하라”**전남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남도의회가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와 함께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 대표,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 법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조치는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경영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와 축산업 전반에 미

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축산농가를 위한 소득보전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종전에 시행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이며 불과하다”며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 자율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 오현섭 여수시장은

민주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 추진키로**정책위, 엑스포추진상황 보고회**

통합민주당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박람회 개최 추진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 오현섭 여수시장은 “체험시설 및 연계교통시설 등도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기에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순천) 의원은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별법 개정을 동부권 의원들과 상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이 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 문제가 이슈가 되자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박람회지원특위를 다시 구성하고 이 지원특위 안에서 특별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BIE 인정신청서를 기한에 맞추어 우선 제출한 후, 개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차기 BIE총회(제 144차, 2008년 12월) 이전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측은 아울러 여수프로젝트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혜양개발 및 혜양오염 등 전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여수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백화점 광주점 HYUNDAI

LOVE LOVE LOVE

5월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당신의 깨끗한 가족의 행복이 더 커집니다. 5월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현대신한카드(구 현대LG카드, 현대백화점카드, 현대카드 S 포함)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충청기간 : 5/1(목)~5/4(일), 12일간

충청장소 : 8층, 사은품 충청 대스크

충청기준 : 기간 중 당일 구매고객

**충청점**

- 충청 현대신한카드 드류 샌드, LG카드, 현대백화점카드, 현대카드 S, 모바일 구매한 분의 앤디 중에 현대백화점 카드로 결제하여 현 카드 양수증을 포함하여 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브랜드 충북현대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 10만 원 미만이 되었을 때만 현대백화점 카드로 상품권을 드립니다.

충청점 대상

영국, 싱글족, 모녀족, 어른사, 경기대 학부모가 주금속/반금속 풀무네 대상은 충청점에서 제공합니다.

직불 기관, 골프장 등은 구매금액의 50%를 양성합니다. 단, 소액결제/인터넷결제는 100% 양성

- 5/1(목)~4(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입니다.
- 5/5(월) 정상영업 합니다.

